

## 장애학생의 도우미 경험에 의한 대학생의 장애 인식 변화

오 세 응\* · 서 석 진\*\*

### A Study on the Change of Disability Percep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Peer Assistance Experience

Oh, Sewoong\* · Seo, Seokjin\*\*

#### 요약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이 있는 경북의 D대학교에 재학 중인 6명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방법]** 2018년 3월 한 달 동안 연구 참여자 선정과 면담, 전사 작업을 하였고, 2018년 4월 1일~4월 20일까지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장애학생 도우미활동 경험전, 경험중, 경험후로 분석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를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통합교육 경험을 통하여 가장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통합학급의 교사의 인식관, 장애부모의 가치관, 또래의 반응이 인식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미디어를 통한 인식개선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론을 근거로 후속연구의 반향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그 시사점으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의 개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교양과목 개발,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조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도우미 경험, 장애인식, 질적연구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improvement of disability consciousness for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and we analyzed the details related to the disability perception shown in the experience of inclusive education among six students attending D University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Method]** During the month of March 2018,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interviewed, and worked in the company, and the compan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data from April 1 to April 20, 2018. The study participants categorized three types of disability awareness through their experience with inclusive education. **[Results]** The study participants categorized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disability into four categories by analyzing them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xperience of helping disabled students. **[Conclusion]**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owed the most improved recognition through the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and the perception of teachers in the integrated class, the values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 peer reaction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the improvement of perception through media was somewhat low.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suggestions were made on the reverberation of follow-up studies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improve the sense of disability. With its implications, the Commission proposed developing disabled liberal arts courses for college students, improving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for prospective teachers, and conducting disability-conscious surveys for university faculty member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Peer assistance experience, Disability perception, Qualitative study

\* 제 1저자, 가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Kaya University  
\*\* 교신저자, 대구한의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jkhyi@hanmail.net)  
Professor,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Daegu-Haany University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환경적 문제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612,990명에서 2016년 2,511,051명으로 장애인구가 증가하였다[1]. 후천적 질환에 의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56%, 후천적 사고에 의해 장애를 입는 경우가 33%임을 고려할 때,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2]. 장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통합 역시 증가한다. 가능한 비장애인들의 삶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을 주장한 정상화(normalization) 원리가 1960년대에 출현한 이래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및 차별금지에 대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통합교육의 시행이 요구된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들에게 비장애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및 사회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에게는 장애학생들과 함께 수업과 학교생활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비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부정적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통합교육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기본법 제 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에서 통합교육을 제공이 명시되어 있다. 2000년 이후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된 15,595명과 특수학급에 배치된 48,848명을 합쳐 일반학교에 배치된 숫자는 64,443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0%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3]. 특수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동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사소통,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의 발달 영역에서 현저히 일탈된 상태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대다수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아동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다수의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4가지 측면에서의 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같은 교실에 배치되는 물리적 통합,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형성의 사회적 통합,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는 정서적 통합,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학업적 통합이다. 그런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물리적 통합은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영역의 통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사회적 통합과 정서적 통합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한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4, 5, 6]. 또한 진정한 통합교육이 되려면 장애학생이 일반학교 교실에서 또래학생과 우정을 쌓고

교실에서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비장애학생들이 동등한 수용태도를 보여야 한다[7]. 다시 말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서로 간의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통합교육 경험이 없거나 적은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8]. 통합교육 경험 자체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거부 및 적대적 행위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통합교육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여도 이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9]. 그 외에도 각종 메스컴과 신문 등을 통해 통합교육 환경에 있는 장애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거나, 주변 비장애학생이나 교사로부터 거부당하는 사례를 계속 보게 된다.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통합과 적응 역시 부정적 장애인식에 의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러 장애인들이 직장에서도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34.8%의 장애인이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10]. 그리고 정문주와 조한익(2010)은 2016년 2/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보고서에 근거하여 전국의 취업연령대 장애인 중 2%만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장애인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11].

결국 다수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장애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과의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포함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특별히 대학생의 장애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평균 56%를 상회하는 81%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다[12]. 이러한 고등교육 보편화로 인한 대학 진학률 증가는 장애학생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018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 7,811명 중에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진학자 숫자는 1,301명으로 16.6%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3]. 5.2%에 불과했던 1998년의 진학률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 대학생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 대학생이 겪는 대학생할 부적응, 학업 곤란,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13, 14]. 그리고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및 편의시설의 부족,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못한 수업, 등 여러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15, 16]. 장애 대학생의 성공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대학 내 장애이해 프로그램이 필수로 요구된다.

무엇보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해 가는 시기로 자신의 인식과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시기이다. 졸업 이후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 장애인과 같은 회사,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제자, 동료, 상사, 고객 등으로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회인이 된다면, 왜곡된 장애인식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교양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17].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연구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와 관련된 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식조사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조사하였고 그에 따라 장애 개선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5, 18, 19, 20].

둘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을 조사하거나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통한 장애인식 및 통합교육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제시할 수 있다[21, 22, 23, 24]

셋째, 대학생들에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와 장애인의 이해를 주제로 한 교양 과목 수업을 통한 장애인식 변화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4, 17, 25]

넷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장애 관련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인식 변화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11, 26, 27].

이와 같이 대학생의 장애인식 관련하여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이 양적 연구였고, 질적 연구가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양적 연구는 설문지 작성이 불성실할 경우 정확한 인식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자유로운 면담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심층 분석한 질적연구 역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장애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또래 도우미 활동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통합학급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을 한 경험이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며,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28, 29]. 물론 장애학생 봉사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가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의 통합교육 학급에서 장애학생의 또래 도우미 경험이 대학생이 된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통합교육 환경에서 또래 도우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면담을 실시하여 장애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장애인식이 변화된 계기와 사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모두 고찰하였다. 대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써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밝힌다.

## 연구 문제

본 연구를 위한 문제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 학생 또래 도우미 활동을 통해 장애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로 제시한다.

## 용어 정의

### 장애 인식

인식은 특정 대상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 혹은 생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식은 장애인에 대해 느끼는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혜경(2016)이 제시한 대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지를 장애 인식으로 정의한다[30]

## 연구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통합교육 도우미 활동에 대한 개인의 체험을 분석한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 참여자 선정과 면담 및 그에 대한 자료처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간은 2018년 3월 1일~4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3월 2일~3월 15일까지 연구대상자 선정을 하였다. 교신저자가 재직 중인 경북에 위치한 D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중등특수교육과 학생들의 친구 중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를 했던 대학생들을 모집하였다. D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학생들을 통해서 1차로 모집된 인원이 11명이었는데, 교신저자가 직접 만나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동의한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 한 후,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문서로 만들어 직접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면담 녹음을 동의 받았다. 물론 면담 내용에 대한 비공개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구두와 문서로 제시하고 동의를 받았다.

교신저자와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이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으로 진행하였는데 미리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전달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교신저자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고, 면담 시간은 한 명당 40분~1시간까지 진행되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 개인별로 2~3회 실시하였다. 면담과정과 내용은 모두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통해 녹음되었다. 녹음내용은 녹음이 끝난 바로 그 날에 교신저자가 직접 전사 작업을 하였다. 전사내용은 A4 용지 45장이었다(글씨 크기 10, 줄간격 170, 장평 100). 2018년 3월 16일~3월 31일까지 면담과 전사 작업 모두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4월 1일~4월 20일까지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4월 30일까지 결론과 논의를 완성하였다.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은 연구 설계에서 제시된 과정에 따라 최종 선택된 6명의 대학생으로 결정하였다. 아래의 <Table. 1>에 연구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학생의 또래 도우미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 대학생들은 장애 관련 비교과활동이나 교양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없었음을 밝힌다.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tes

| participates         | age | gender | major             | experience period of peer assistanc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 type of school                 | students with disabilities type of disabilities/ gender |
|----------------------|-----|--------|-------------------|---|--------------------------------|---|
| university student A | 20  | F      | special education | middle school 3 grade   | public middle school           | intellectual disability/ F                              |
| university student B | 20  | M      | technology        | high school 2 grade   |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 | autistic disorder/ M                                    |
| university student C | 21  | F      | welfare           | high school 2 grade   | public academic high school    | autistic disorder/ F                                    |
| university student D | 23  | F      | technology        | high school 2 grade   | public academic high school    | intellectual disability/ F                              |
| university student E | 22  | F      | commerce          | high school 1 grade   | private academic high school   | physical disability/ F                                  |
| university student F | 22  | M      | art               | high school 3 grade   | private art high school        | intellectual disability/ M                              |

## 연구 도구

연구 설계에서 제시된 것처럼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을 위한 질문 목록을 준비한 후에 질문 목록에 따라 면담이 진행하지만, 문항의 생략이나 변경이 가능한 것이 반구조화 면담이다. 면담을 위한 질문 목록은 장애인식 관련 질적 연구인 권희연과 이미애(2015), 서석진과 김양미(2018)의 연구[9, 27]를 참고하여 두 연구자가 논의한 끝에 결정하였다. 질문 내용은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활동을 통해 장애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Table. 2>에 제시하였다.

권희연과 이미애(2015)는 교원양성과정의 대학생들이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제시하였다[9]. 서석진과 김양미(2018)는 통합교육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시설 봉사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식이 변화된 것을 제시하였다[27]. 본 연구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통합교육을 받을 때에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장애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초점을 둔 것에 앞의 두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면담을 위한 질문 목록을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특수교육과 교수 2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확정하였다.

**<Table. 2> List of Interview question**

- 
1. When did peer assistance in inclusion education and what type of disabled students?
  2. What was the idea of the disabled before the peer assistance, and what was the occasion to think about it?
  3.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disabled while peer assistance in inclusion education ?
- 

## 자료 처리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중·고교 시절 경험한 통합교육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활동을 통해 변화된 장애인식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의미를 찾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면담 내용을 전사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식이 어떠한 지를 찾은 후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 2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교신저자가 전사한 자료는 모두 주저자에게 전달하였고, 함께 분석을 하였다. 분석 기간 중, 평일에 각자 전사 자료를 읽어보면서 장애인식 관련 내용을 표시하였다. 주말에 만나서 함께 읽으면서 장애인식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의미를 해석하였다. 표시한 내용을 모아서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범주화 하였고, 범주화 한 내용을 묶어서 주제로 분류하였다.

##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구자 2인은 직접 만나서 함께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분석을 하였다. 먼저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 밑줄을 긋고 표시한 후에 그 내용들을 다시 모아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을 하면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면서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 간의 신뢰도를 100%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검증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면담 목록에 대한 검증을 담당했던 특수교육과 교수 2인으로부터 전사 자료를 분석하여 범주화 한 내용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전사 자료로부터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았다. 두 교수가 지적한 부분은 두 연구자가 다시 토론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밝힌다.

##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장애인식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서론에 제시한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끼리 연결하여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또래 도우미 활동을 통해서 변화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을 크게 3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범주 별로 2~4가지의 소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범주에 따른 소범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데, 구체적인 면담 내용을 기술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 다음에 괄호 속에 연구 대상자와 전사 페이지 숫자도 함께 나타내었다.

**<Table. 3> Results**

| category  | small category  |
|---|---|
| The disability perception to before experience of peer assistance | The disability perception according to the Reaction of the People around      |
|   | The disability perception formed through books and images                     |
| The disability perception through experience of peer assistance   | I think disabled people can do it from the thought that they can't            |
|   | The disabled people are from being discriminatory to being equal.             |
|   | A disabled person is from someone who has nothing to do with me to my friend. |
|   |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disabled   |
| The disability perception to after experience of peer assistance  | Respect for the disabled people   |
|   |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people                           |

### 또래 도우미 참여 전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애인식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압축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른 부정적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 도우미로 참여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부정적 장애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부정적 장애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주변 사람들은 교사, 부모, 또래 친구들이 있었다.

#### **교사의 반응을 통한 장애 인식**

참여자들은 또래 도우미 경험 전, 초·중·고 시절에 교사가 장애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장애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나타내었다. 아래에 진술을 통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참여자의 반응을 진술하면서 참여자와 전사 페이지도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하였다. 교사의 부정적 반응에 따른 부정적 장애인식을 가지게 된 것부터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였나? 우리 반에 지체장애 친구가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손도 조금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기는 했던 거 같아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밥 먹는 거나 글씨 쓰는 거라든지 스스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한테 도와줘야 하는 친구로 늘 말씀하셨어요.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보고 색칠도 해 주라고 하셨고, 밥 먹을 때도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대학생 A, 6p)

일부 선생님들이 장애학생은 수업에 방해가 많이 된다고 화를 내시면서 그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 특수반으로 바로 내려 보내셨어요.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의 행동이 수업을 많이 방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특수 선생님께 그 아이를 그냥 계속 특수반에 데리고 있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우리도 그 친구는 참 문제가 많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고 욕도 했는데 선생님은 우리보고 참으라고만 하셨어요. 장애인들이 잘못해도 다 용서해줘야 하고, 우리가 참아줘야 한다고요. (대학생 B, 13p)

지적장애지요? 지능이 조금 낮은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급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지능이 낮기는 해도 말도 잘 하고, 웬만한 운동도 다 잘 했어요. 보통 중2병이라고 하지요? 장애인 그 친구도 똑같이 말썽도 부리고, 지각도 자주 하고, 숙제도 안 해 왔죠. 선생님들이 그 친구는 숙제를 안 해와도,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다른 친구들은 혼내시는데, 그 친구는 그냥 봐 주시더라고요.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로요. 그 친구가 평판이 안 좋았지요. 장애인이라 별도 안 받고 봐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저도 그 아이가 밋고 도움반의 다른 아이들도 다 안 좋았지요. (대학생 C, 20p)

사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대 놓고 그 아이가 수업 못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숙제를 해 오든 말든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당연히 반 친구들도 그 친구는 우리가 하는 수업을 못 따라오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냥 그 아이는 다 못한다고 여겼고요. (대학생 E, 33p)

참여자들의 반응에서 도우미 활동 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위의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장애학생이라서 잘못을 해도 봐 준다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도와주라는 교사의 태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의 긍정적 반응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1 때, 저희 반에 지적장애 아이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좋아하셨고, 교무실에 그 학생이 찾아가면 웃으면서 반갑게 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른 분들 있잖아요. 행정실장님이나 급식소 아주머니들도 그 학생을 보면 인사도 먼저 하시면서 잘 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들도 그랬고요. 저도 그 아이를 보면 웃으면서 인사했지요. (대학생 A, 5p)

중학교 때, 자폐 아이가 영어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짝을 때렸는데 영어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잘못할 때에 따끔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일부러 그 아이를 봐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너희에게 다같은 친구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평범한 아이로 대했어요. 청소시간에 청소도 같이 하고, 체육시간에 같이 운동도 했어요. (대학생 D, 22p)

고2때 담임선생님은 우리 반에 있던 특수반 친구에게 다른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 주셨어요.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는 그 친구에 대한 이해를 구하시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모두 그 아이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 아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지요. 그 아이는 지적장애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고, 우리들과 별 차이는 없었던 거 같아요. 우리반 친구들 모두 다른 반 아이들에게 그 친구를 놀리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했지요. (대학생 F, 40)

위의 사례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의 반응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교사가 장애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따라 장애인식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부모의 반응을 통한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는 자녀의 통합교육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무관심한 경우로 나타났다. 자녀의 통합교육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장애학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조언한 것으로 아래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마는 우리 반에 있던 자폐아이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장애인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하셨어요. 제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닌 진짜 친구로 생각하고 잘 지내라고 하셨죠. (대학생 D, 25p)

부모님은 지체장애 친구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지 말고 잘 대해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많이 괴롭혔지만 저는 그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그러지 마라고 말리고, 그 친구가 힘들어 할 때 도와주기도 했어요. (대학생 E, 30p).

어느 날 아빠가 저에게 장애인 도우미 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의 반에 있던 지적장애 친구의 존재를 알고 계시면서 제가 해 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다른 친구가 하기로 해서 저는 도우미를 못 했고, 고등학교에 와서 도우미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 친구에 대해 가끔 물어보시면서 그 친구를 옆에서 잘 챙겨주되 무조건 도와주지 말고 필요할 때 도와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도와주지 않았고,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었습니다. 그 아이와 이야기도 나누면서 농구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던 거 같아요. (대학생 F, 41p).

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가 보인 긍정적 장애인식에 따라 참여자들도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래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 중에서 장애학생에 대해

무관심을 보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장애인식에 별 영향이 없었다. 결국 부모의 반응에 따라 장애인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진술에서 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엄마에게 우리 반에 특수반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아이가 자폐가 있는 아이라서 자폐아이 특성이 어떤지 엄마가 저에게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했지요. 그런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고, 다만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하기는 하셨어요. 저도 그 아이에게 별 관심은 없었어요. (대학생 A, 4p).

아빠나 엄마는 우리 반에 있는 지적장애 아이에 대해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그냥 그 아이가 나랑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는지, 별 문제는 없는지 정도만 물어보셨어요.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그냥 무관심했어요. (대학생 B, 12p)

### **또래의 반응을 통한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또래 아동들이 보인 반응에 따라 장애인식이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내었다. 참여자들은 또래 친구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고 그에 따라 부정적 장애인식을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지적장애 아이가 급식 먹을 때, 반 아이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먹던 음식을 뱉어서 그 아이의 밥 위에 올려놓는 장난을 쳤어요. 장애 친구가 싫다고, 하지 마라고 해도 계속 웃으면서 놀리고 때리고 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장애 아이랑 친하던 아이들도 안 놀려고 했죠. 저도 장난으로 장애 아이를 한 번씩 놀리기도 했었어요. 그냥 반 전체가 다 했으니까. 장애인에 대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입장이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저와 다른 친구들이 다 편견이 생겼는데, 그냥 지적장애인은 무능력하다는 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 C, 18p)

중학교 때에 뇌성마비 아이랑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말이 좀 어눌했는데, 소위 노는 애들이라고 하죠? 덩치 큰 애들 중심으로 그 애 말을 일부러 따라 하고, 지나가면서 때리기도 하고 했어요. 뇌성마비 친구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애들이 나쁘다고 생각은 했는데, 다른 아이들도 침묵했고 저도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뇌성마비 친구가 안됐다는 생각보다 그 아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당한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대학생 F, 37p)

위의 사례에서 장애학생이 있는 학급에서 또래 학생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을 때, 학급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장애학생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부정적인 태도로 장애학생을 대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위기에 따라 방관하거나 같이 놀리는 태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참여자들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 **미디어를 통한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도우미 활동 이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책과 영화 및 드라마 등을

통해서 가지게 된 장애인식을 아래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수가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에 동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반응은 아래와 같다.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이라면, 솔직히 그냥 안 됐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동화책에서도 장애인들은 모두 불쌍한 존재로 나오잖아요. 전래동화 심청전에서도 심봉사가 나오는데 앞을 볼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 말아톤에서도 초원이가 따귀를 맞는 장면이 나오구요. 드라마도 장애인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모두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했지요. (대학생 A, 3p)

백치 아다다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청각장애인 역할을 했는데, 병어리라고 놀림 받고, 나중에 쫓겨나는 것을 보았어요. 말을 못하고 들리지 못하는 것, 장애인들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 C, 15p)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어떤 남자 고등학생이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있었는데, 일반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짓는데 반대해서 장애학생 엄마들이 무릎까지 꿇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학교에 다니는 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자신을 위한 학교까지 지을 수 없고, 일반학교는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안 돼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대학생 E, 32p)

위의 진술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진술들을 보면 장애인 관련 책과 영상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 시선과 불쌍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또래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장애 인식**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자신의 장애인식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데 각 범주에 따른 구체적 진술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먼저 참여자들은 통합교육 경험을 통해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진술은 아래와 같다.

체육시간에 배구 수업을 했을 때예요. 그 때까지 제가 도우미를 했던 그 지적장애 아이는 공을 받거나 던지는 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던져주는 공을 잘 받고 직접 서브도 넣고 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죠. 그 아이는 말도 잘 안 하고 침도 흘리고 그런 모자라고 부족한 아이, 할 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체육시간에 그 수업을 하면서 또 구구단도 외우고, 연산도 하고,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거나 게임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장애 아이들을 계속 만나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특수교사가 되어서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싶어요. (대학생 A, 6p)

자폐가 있는 친구도 정말 잘 하는 게 있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반에 있던 제 짝꿍이었던 그 친구는 암기를 너무 잘 했는데,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입었던 옷이랑 언제 처음 만났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요. 처음 만난 시간까지도. 정말 대단하죠? 그 친구를 통해서 장애인도 우리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잘 하는 것이 있음을 느꼈어요. 요즘도 가끔 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가요. 거기서 만나는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의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있어요. 함께 가는 친구들은 저들이 잘 못 하니까 도와주는 것으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대학생 C, 20p).

합창대회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친구도 우리와 같이 나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잘 부르더라고요. 소프라노를 했는데 음정이나 박자나 모두 틀리지 않고 잘 했어요. 함께 합창대회를 하면서 그 친구를 새롭게 봤어요. (대학생 D, 25p)

제가 고1때 도우미로 섬겼던 친구는 뇌성마비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을 휠체어에서 보냈고, 여러 활동을 할 때 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는데, 말이 조금 느렸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고, 아이디어가 많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수업시간에 발표도 잘 하고 칭찬도 받았고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부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되어 반성했어요. (대학생 E, 35p)

위의 진술에서 장애학생들이 보여준 다양한 능력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도우미로써 장애학생과 여러 활동을 함께 하거나, 수업 시간에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 **장애인은 차별적 존재에서 동등한 존재로**

참여자들은 도우미 경험을 통해서 장애인이 자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도우미 경험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고,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다른 차별적 존재라는 생각이었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자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볼 수 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처음에 그 친구의 도우미가 되고나서도 그 친구가 무서웠어요. 소리도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장애인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에 그냥 무시하기도 했죠. 나와 다르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친구와 함께 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죠. 아까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결국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생 D, 28p)

그 친구와 같이 놀러가서 밥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친구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똑같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친구도 좋아하고요. 그 친구가 여자 친구인데 보니 같은 여자로서 생각과 관심사, 이런 것에서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학생 E, 34p)

결국 참여자들은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장애 친구와 함께 활동하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장애인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장애인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서 나의 친구로**

참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서 친구라는 인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제시하였다.

그 아이와 한 반이 되기 전까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같은 학교 친구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한반이 되어서 같이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도 점점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 전까지 특수반 선생님이 인성교육 시간에 장애 관련 교육을 하시면서 그 아이도 같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잘 와 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반이 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반 다른 아이처럼 그 아이도 우리 반 친구가 되었어요. (대학생 B, 10p).

솔직히 장애인 관련 기사를 보거나 하면 장애인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 반에 있던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장애인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장애인이라는 생각보다 친구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를 그 친구도 같이 좋아하고 있었고, 좋아하는 행버거를 같이 먹으러 다니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대학생 E, 29p).

지금도 그 친구한테서 카톡이랑 SNS도 같이 합니다. 지적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소통하고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친구가 아닌 같은 학교를 나온 동기고, 친구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대학생 F, 39p)

위의 사례를 통해서 통합교육 경험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인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장애인과 함께 하는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여러 활동, 공동의 관심사, 등을 경험하면서 장애인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친구가 된 것이다.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참여자들은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기도 했지만, 부정적 인식도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진술은 아래와 같다.

도우미가 되어 그 친구랑 함께 하면서 많이 친해지기도 했지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자폐아 특성 상 한 가지에 집착하잖아요? 수업시간에 책상을 치거나 콧소리를 낸다든가,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저를 꼬집고 때리기도 했어요. 자폐 친구의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피해를 주게 되는 모습에는 저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른 장애아이 보다 자폐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낯설고 피하게 될 때가 있어요. (대학생 B, 11p)

솔직히 도우미 할 때 늘 붙어 다녔지만 그 친구가 부담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씩 나타나는 자해행동으로 화가 나면 자기 손을 꼬집고 가끔 욕도 했었거든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말을 잘 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다른 아이들이 보면서 웃는데도 혼잣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아이가 벽차고 힘들었어요. (대학생 C, 21p)

위의 진술을 통해서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가질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두 명의 참여자의 경우는 자폐성장애 학생의 도우미였다. 자폐성장애 학생의 독특한 말과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또래 도우미 경험 이후 현재의 장애 인식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경험 이후, 현재 장애인식이 어떠한지는 아래의 2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 장애인에 대한 존중

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를 기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우미 활동이 전부는 아니라도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해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개별적인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거 같아요. 물론 지금도 장애인에 대해 100% 다 수용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존중받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또 장애학생 한 사람을 위한 교사가 되고자 지금의 중등 특수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애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존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대학생 A, 7p)

지금 제가 장애인 시설에 거의 매주 봉사를 가고 있어요. 여러 장애인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어요. 장애인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봉사 가는 친구들에게도 장애인 한 사람의 개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학생 C, 20p)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장애인을 만났어요. 지적장애 아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갑자기 혼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두 명이 바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놀리면 안 돼”라고 말했어요. (대학생 D, 28p)

지금도 장애인의 개별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의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생각인데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학생 F, 38p)

위의 반응을 보면 장애학생 개인을 존중하는 특수교사가 되고자 특수교육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고, 장애인 시설 봉사에서도 장애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 당당하게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지적해 주는 등, 도우미 때의 경험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짐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장애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

참여자들의 의견에서 현재에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아래에 제시한다.

관련 수업을 하면서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장애인 시설을 무슨 혐오시설인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가 속상했습니다. 왜 반대를 그렇게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대학생 E, 35p)

최근 드라마에서 장애인을 병리적인 존재나 환자로 여기고 무시하는 모습에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들이 편견이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댓글을 달면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옹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저의 행동이 장애인의 인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요. (대학생 F, 38p)

위의 진술을 보면서 참여자들은 장애인들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 문화적인 부분이나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작은 행동이지만 실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경험이 있는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도우미 경험에 나타난 장애인식을 분석하였다. 도우미 경험 이전의 장애인식,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장애인식, 경험 이후의 장애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와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애학생 또래 도우미 경험 이전에 장애인식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혹은

장애 관련 책과 영상물을 통해서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교사, 부모, 또래 학생들이 있었다. 장애인식은 긍정적 인식도 있었지만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대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31, 32]. 결국 통합교육에서 교사의 영향이 크을 알 수 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교사의 역량이 통합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도, 전문가와의 협력, 부모 상담 등의 역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교사의 장애인식 역시 통합교육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24]. 교사가 가진 장애인식이 그대로 장애학생을 대하는 말과 행동에 드러나게 되고, 그 말과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이라고 잘못을 해도 봐 주거나, 숙제를 면제해 주는 태도를 보일 때에 다른 학생들도 장애학생을 무능력한 존재로 평가하였음을 보았다. 그리고 통합학급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도 특수학급으로 내려 보내는 태도는 장애학생을 거부한 것이다. 오원석(2011)은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로 통합학급 교사가 가진 장애학생에 대한 친밀감과 통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시하였다[23]. 이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그 뿐 아니라, 교사의 부정적인 장애인식이 장애학생을 거부 및 방임을 통해 통합교육 환경에 부적응 하는 결과로 확대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사례가 비장애학생이 교사의 반응에 따라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고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래 학생들이 보인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 역시 교사의 부정적 장애인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교사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또래 학생들이 보인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방관하거나 가담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군중심리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군중심리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긍정적이고 편견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11]. 그러므로 군중심리가 장애인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학급의 분위기 조성 및 장애인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도우미 경험 전에 책과 영상을 통해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이며 동정적 시선으로 대했음을 나타내었다. 장애 관련 동화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같은 동영상물 통해서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현장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3, 34]. 그런데 본 연구 참여자들이 장애인 관련 동화와 영화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것을 보면서 구조화되지 않고, 교사의 의도에 따른 설계가 없는 책과 영상 자체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통합교육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장애인식에는 대체로 긍정적 인식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인식도 나타내었다. 긍정적 인식에는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되었고, 장애인은 차별적 존재가 아닌 동등한 존재라는 점, 장애인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친구라는 점으로 변화되었다. 부정적 인식은 자폐성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도우미 경험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통합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장애 학생을 친구로 인식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이는 김성애(2011), 신경미(2002)가 제시한

것처럼 결국 통합교육 경험을 통해서 장애학생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넘어 우정의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7, 35]. 장애학생과 우정이 형성될 수 있으려면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면서 상호작용의 증가함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 장애인도 동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사례에 대해서도 상세히 제시하였다. 결국 장애인과 함께 하는 유의미한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볼 수 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과의 접촉 빈도를 증가시켜야 하지만, 최은정과 박순길(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장애인과의 통합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오히려 더 장애인식이 부정적이었음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8].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이해교육과 더불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도우미 경험에서 부정적 장애인식도 있었다. 특히 두 명의 참여자가 자폐성장애 학생의 도우미였는데, 자폐성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에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자폐성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을 포함한 이질적 특성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자폐성장애 학생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36, 37]. 이번 연구에서 2명의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반항어, 상동행동, 공격행동, 등의 문제가 통합학급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므로 자폐성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전략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특히 자폐성장애 학생들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13.4%로 지적장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기에[3], 통합교육을 위해 적절한 행동중재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참여자들은 도우미 경험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는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가까워지면서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권희연, 이미애(2015)는 준비 없는 통합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장애학생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인권의식의 퇴행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9]. 그러므로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인권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애이해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론적 교육이 아닌 의미 있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을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통합교육에서 교사의 장애인식이 학생들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직소양 과목인 특수교육학개론 강좌의 방향이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학생의 존중과 인권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예비교사들이 졸업 이후 교사가 되어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합교육 환경에서 다른 비장애 학생들에게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38, 39]. 교직과정에서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은 주당 2시수, 2학점으로 시간적 한계가 많지만,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통해서 예비교사들이 장애 관련 지식과 교수방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편견 없는 태도를 확립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식에 의한 수업이 되어야 한다. 조규영, 서석진(2018)은 장애 관련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동영상의 감상과 토론,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장애인과의 만남 등이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긍정적이었음을 제시하였다[24].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의 방향이 예비교사들의 장애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봉사가 6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학생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사전에 체계적인 장애이해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 사례에서 장애학생과의 의미 있는 만남과 체험이 될 때, 장애인식 개선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대학 내 교직원과 대학생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양강좌와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학생들 역시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장애인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을 조사연구를 제안한다. 장애 대학생 인식에 관한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윤현숙, 전병진(2012)의 연구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40]. 그러므로 여러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을 조사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가 다른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있지만 본 연구는 통합교육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가 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 Reference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Statistics Disability Registration.
- [2] Jeon, M. Y., & Lee, H. W. (2017). A Survey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Univers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5), 1-13.
- [3] Ministry of Education. (2018).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in 2018.
- [4] Kwon, M. E. (2017). University students' Changing Attitudes toward Disabilities During Special Education Cour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8(1), 145-167.
- [5] Seo, S. J., Shin, H. J., Kim, Y. M., & Shin, T. W. (2018). A Study on the Awareness of Disabled Persons: Students in Welfare Department and Rehabilitation Department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 727-736.
- [6] Shin, G. I., Woo, Y. S., Park, H. Y., & Kim, J. R. (2017). A Study about Factors Influencing on Awareness toward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by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1(4), 177-193.

- [7] Kim, S. A. (2011). A study on The Teacher's Tasks on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in General Education Settings of Korea.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8(1), 1-25.
- [8] Choi, E. J., & Park, S. G. (2014). Comparison of Disability Accepting Attitudes between Integrated and Non-Integrated Class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7(3), 71-87.
- [9] Kweon, H. Y., & Lee, M. A. (2015). A study on the Perception on the Righ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Influence on the Personality of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Integrated Education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0(2), 1-27.
- [10] Oh, U. C. (2018).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63, 47-58.
- [11] Cheong, M. J., & Jo, H. I. (2016). Before and After The Challenged Acceptance Attitude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hallenged Students Support Program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2), 209-244.
- [12] Kang, H. K., Kim, J. H., & Lee, K. S. (2011). Analysis on Perception on Disability, Experiences and Needs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tudent with Disabilities Support Program in College.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8(2), 265-294.
- [13] Kim, S. A., Park, C. W., & Lee, H. G. (2003). Characteristics of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needs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7(4), 335-357.
- [14] Yeo, S. J. (2016). An Empirical Study of Disabled University Students' User Experience with Assistant System.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15] Kwak, J. R. (2009). (An) ethnographic study on practical situation and needs of the assistive service for disabled students at sunshin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 [16] Lee, H. S. (2009).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the High-education Right for Disable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2(1), 92-109.
- [17] Yoo, S. O. (2011). Social Proximity toward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Courses related to Disabiliti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8(1), 281-304.
- [18] Choi, G. H. (2011). Personality Types of Students in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and Engineering and their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2), 141-160.
- [19] Jang, C., & Shin, H. S. (2013). Research Article : Open Access ; Study on th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ttitudes & Behavior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8(3), 317-326.
- [20] Noh, B. S., & Park, H. J. (2018).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Major Students' Attitude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23(1), 33-48.
- [21] Kim, N. J., & Shin, H. S. (2016). The Study on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by Using SADP and ATDP-O.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7(3), 313-331.

***A Study on the Change of Disability Percep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Peer Assistance Experience*** 237

- [22] Na, K. E., & Seo, Y. J. (2011). Analysis of Changes in Teacher Competency for Inclusion among Pre-service Teachers at Secondary Level Through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Cour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3), 183-212.
- [23] Oh, W. S. (2011).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Disabilities and Their Attitudes toward and Concerns about Inclusiv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4(2), 115-142.
- [24] Cho, K. Y., & Seo, S. J. (2018). Change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Special Education Introductory Clas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4(2), 73-100.
- [25] Yang, M. H., & Lim, E. M. (2004). The Effect of Class "Modern Society and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o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3), 203-223.
- [26] Ma, S. R., & Hong, E. K. (2018). The Changes in Major Satisfaction, Disability Awareness, and Acceptance Attitude to the Disabled through Volunteer Activity Classes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8), 241-248.
- [27] Seo, S. J., & Kim, Y. M. (2018). A Study on the Changes to the Disability Perception of Preservice Social Welfare Worker Created by Involvement in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0), 831-838.
- [28] Kang, S. G. (2005). A effects to non-disable student's peer relationship with disable student by peer-helper activity in inclusion classroo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2(2), 133-160.
- [29] Lee, M. Y. (2014). Study on the peer helpers awareness of disability and the accommodation attitude toward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middle school.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30] Jeong, H. Y., & Chu, Y. G. (2016). The Effect of the Educational Programs about Handicapped Persons' Human Rights on the Elementary Students' Disability Perceptions and Acceptance attitude.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1), 69-86.
- [31] Kang, D. O., Park, S. Y., & Ku, S. S. (2008). A study on in-service condition and perception of teachers working in inclusive preschools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eacher Education Research*, 47(1), 119-141.
- [32] Kang, Y. S., & Choi, I. S. (2003). A study on perception of inclusive classroom teacher of teacher's competencies for working in inclusive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20(3), 23-38.
- [33] Park, J. Y., & Kim, S. Y. (2007). Children's Attitude Change toward Disabled People through a Rewriting Activity of Stories Dealing with Disorder. *The Korea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2), 29-51.
- [34] Park, J. W., Kang, Y. S., & Jo, H. S. (2010). The Effect of Discussion Activity by using the Created Tales related to the Disabilities on the Disabilities Acceptance Attitudes of Childre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2(4), 343-361.
- [35] Shin, K. M. (2002). The effects of an application of friendship support program through intercourse education with general school and special education on acquiring friendship skills between autistic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3(4), 107-134.

- [36] Song, M. A., & Lee, S. H. (2015). General Students' Perceptions on Inclusive Education of Students with Autistic Disorder in Inclusive Classroom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1), 155-172.
- [37] Cho, K. Y. (2018).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Positive Behavior Support targeting a Child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2*(3), 47-71.
- [38] Burkhardt, S., Obiakor, F. E., & Rotatori, A. (Eds.). (2004). *Current perspectives on Learning Disabilities*. Oxford: Elsevier.
- [39] Montgomery, D. (2003).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Double exceptionality*. London: David Fulton.
- [40] Yoon, H. S., & Jeon, B. J. (2012). A Decisive Factors on the Attitude for the Admission of University Students with Special needs: Case of A Univers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3*(4), 261-281.